

주방봉사팀, 주왕산 단풍 나들이!



11월 1일(월), 07:00, 청송의 주왕산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는 준비해간 간식을 받으면서 웅성대는 것이나, 차창 밖에 펼쳐지는 가을 풍경을 보면서 환호하며 즐거워하는 모습들은 영락없이 초등학생 가을 소풍가는 버스 안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도착 후 토착 음식점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주왕산 탐방안내소를 지나 천년고찰 대전사 담벼락을 돌아 제1폭포(선녀폭포) - 제2폭포(용폭포) - 제3폭포(쌍폭포)를 향하는 단풍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누

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과 풍경을 만들어 놓았을까?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주왕산의 단풍이었다.

조선 후기에 축조되었다는 주산지로 향하는 길옆에 늘어선 사과나무 밑에는 붉게 잘 익은 청송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려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다지 큰 저수지는 아니지만 물속에 자생하는 100년 넘은 능수버들과 왕버들 30여 그루의 자태는 물과 어우러진 풍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웠다. 특히 주산지는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라는 영화가 촬영되었다고 해서 많은 여행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기도 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여흥을 달래기라도 하듯이 조용히 각자의 노래실력을 뽐내면서 오늘 하루 일정을 마무리 하였으며, 서울에 도착하여 설렁탕으로 저녁을 먹고 흥가분한 마음으로 각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주방봉사팀의 배경에 권사는 철저한 준비와 매끄러운 진행이 우리들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해 주었으며 함께한 교우들과의 가을 속으로 흠뻑 빠져들었던 행복한 하루였고 함께해서 좋은 추억 함께 공유할수 있어 기뻛고 내년에는 또 다른 산길에서 다시 뽐기를 바랐다. 담임목사님과 5분의 부목사님들께서 동행해 주시어 더욱 알차고 따뜻했던 이번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 오래 간직하고 싶다.

〈박오호 집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강영환	강 준	강하혜	강형우	권다혜	권재현	김교은
김나영	김사경	김승연	김수연	김수홍	김아인	김영운
김영환	김예빈	김예은	김예준	김예지	김유라	김은정
김장민	김정석	김정운	김정은	김정인	김지혜	김태형
김태훈	김한유	김혜석	류성형	류정은	문수현	문지현
박기화	박다솔	박다혜	박선경	박사준	박정호	박지현
박혜경	박혜은	박혜은	박혜인	배가현	배나래	사다연
사병주	서윤미	서윤아	서은지	석진한	석혜원	신민영
손민정	손용진	송광호	송세미	송승이	신순애	신익근
안병선	양기승	양성형	엄정운	엄태준	유명숙	유명연
유병선	유영은	유인재	유재영	유주원	유현진	윤민수
윤병욱	윤수진	윤재영	윤지혜	윤태영	이금비	이기석
이동은	이동호	이미정	이병섭	이상운	이상현	이요완
이재은	이준규	이지민	이지훈	이진형	이한결	이혜리
이희원	이희정	임미경	장연수	장우성	전유정	전지혜
전하은	전희건	정기홍	정나	정성우	정유화	정윤기
조민경	조수연	조수희	조은경	조현경	지동환	채태형
최재원	최희재	하승수	한지수	한지연	함요셉	허도란
홍문정	홍석주	홍석찬	홍유미	황사현	유병선	유영은
유인재	유재영	유주원	유현진	윤민수	윤병욱	윤수진
윤재영	윤지혜	윤태영	이금비	이기석	이동은	이동호
이미정	이병섭	이상운	이상현	이요완	이재은	이준규
이지민	이지훈	이진형	이한결	이혜리	이희원	이희정
임미경	장연수	장우성	전유정	전지혜	전하은	전희건
정기홍	정나	정성우	정유화	정윤기	조민경	조수연
조수희	조은경	조현경	지동환	채태형	최재원	최희재
하승수	한지수	한지연	함요셉	허도란	홍문정	홍석주
홍석찬	홍유미	황사현				

교회와 학교 테니스 시합으로 우의다져



정신학원과 교인들의 테니스 시합이 지난 달 28일 25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은혜스럽게 마쳤다.

그동안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 성도간의 테니스 시합은 두 차례 정도 있었으나 올해 대회가 가장 짜임새가 있었다. 테니스동호회 회장(이종석집사)의 헌신적인 준비와 노력이 돋보였다. 이번 시합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에 모이는 모임에는 문자로 경기일정을 모든 동호인에게 알렸다. 성도간의 교제 중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다. 테니스를 통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 특별히 교회 성도님, 목사님들을 여러 분 만나게 되었다. 이번기회를 통해 정신학원 교직원과 교회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한다. 〈정신여교 이희천 교감〉

회화나무 두 그루 화단에 심겨져



본교회 현관앞 화단에 회화나무 2그루가 이번 가을에 의연한 자태를 뽐내며 새롭게 서 있다.

이 회화나무는 정신학원의 교목으로 운동장 서편에 외롭게 서있는 것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김마리아 회관(본교회)으로 옮겨 심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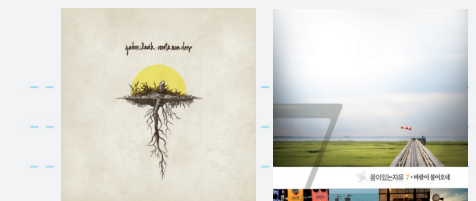
이 일을 감독했던 김순희 중 교감은 “10년전에 졸업생이 기증한 것인데 성장발육이 좋아 이번에 옮겨 심게 되었다”며 이 나무가 잘 착근하여 많은 사람에게 예쁜 꽃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 정원에 대해 신경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글함울의 기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하태원 편집장 T.019.313.3073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가을이 깊었습니다. 하늘도 나무도 온통 가을입니다. 단풍 든 나무를 바라보는 것, 티없이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을은 우리를 충만한 감성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두 장의 음반 역시 가을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음반은 제이든 라빅(Jadon Lavik)의 <Roots run deep>이란 찬송가 모음집입니다. 편곡과 기타실력이 탁월한 제이든 라빅에 의해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가들이 조금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찬송가 본래의 신실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이고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곡이 돋보입니다. 노래와 연주 모두가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여 들을수록 좋아지는 앨범입니다. 수록된 모든 곡들의 영어가사가 앨범 속지에 나와 있기에 몇 곡의 찬송가를 영어로 따라 불러 보았는데,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저에게도 원곡 찬송의 깊이가 느껴지는 듯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음반은 꿈이 있는 자유의 7집 <바람이 불어오네>입니다. 가을과 잘 어울리고 이전 음반들과 마찬가지로 두 분 목사님의 묵상과 신앙고백이 잘 전해지는 음반입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바람이 불어오네”는 아이들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앨범이나 앞서 소개해드린 제이든 라빅의 찬송가 앨범과 같이 영성 깊은 찬양을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것은 아이들의 영성을 자연스럽게 키워주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은 가을날이지만 좋은 음반들을 통해 더욱 풍성한 영성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앨범들을 소개해 드리는 제 맘도 아주 기쁘습니다. 이 두 음반 모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의 VIP분들께 선물해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들어 보시길.. 〈박윤정 기자〉

|오늘의 말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_ 열왕기하 6 : 17

통 권 _ 제 274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11월 14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수능을 앞둔 이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 시험을 잘 보려면 눈이 좋아야 합니다.

이번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71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를 잘 보아야 합니다. 눈이 열려 문제도 잘 보고, 답도 잘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수능 당일 우리 학생들의 눈이 열려 문제를 잘 보고, 자신이 아는 것을 제대로 풀어내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도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대학에 붙고, 누군가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른 눈도 필요합니다. 시험지의 문제와 답만 잘 보는 눈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 하늘을 보는 눈을 주소서

엘리사시대에 아람왕은 엘리사를 잡고자 아람군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온 천지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보다 많음이라.” 그리고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환의 눈이 열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늘의 군대가 땅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눈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시험지의 문제와 답을 잘 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능을 앞둔 이들에게는 당장 수능만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더 살다보면 수능 이상의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을 통해 시험 그 자체만을 본 사람은 결코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아닙니다.

* 시험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시험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법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더 큰 시험이 왔을 때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수능 때가 되면 들려오는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또 그 결과에 비관하여 스스로 소중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입니다. 제발 올해 수능이 끝난 뒤에는 이런 슬픈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엘리사의 기도가 더욱 간절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엘리사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지만, 엘리사의 기도에서 그 눈이 열려 하늘을 보는 자가 되었을 때 세상의 군대 따위는 겁내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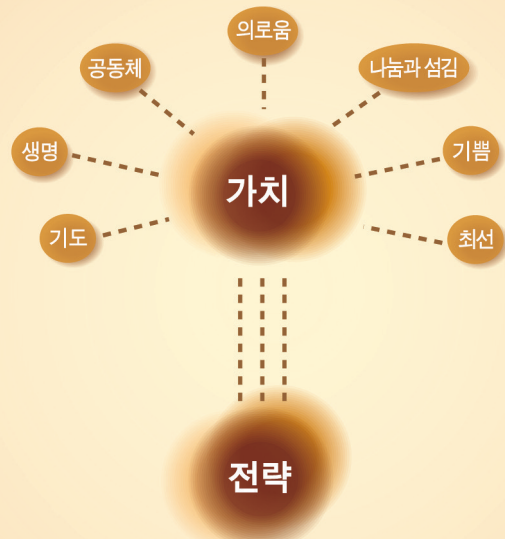
우리 자녀들의 눈이 열려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시험, 그 자체만을 잘 보기를 원하십니까? 시험 그 자체만 잘 보는 사람은 시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높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멀리 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시험을 망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쳐도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웃는 자는 하늘을 보는 자입니다.

이번 수능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 아이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시험의 문제와 답만 잘 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수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당장 보여지는 결과에 웃고 우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는 아이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번 수능이 끝나고는 낙망과 절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슬픈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하옵소서.”

〈담임목사 박원호〉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



1. 체계적인 말씀사역
2. 선교 공동체로서의 소그룹활성화
3. 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만들기
4. 교회 지원과 개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5.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
6.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교육과 청소년 집중 사역
7. 통합적 환경 복지 사역

주간 목회력

11.14 (주일) 수능생을 위한 축복기도
(4부예배시)

11.21 (주일) 정기당회

11.29 (주일) 대림절특별 새벽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새벽기도 주간〉

〈개척교회준비기도회〉

매주 목요일 / 오후8시 (소예배실)

간증 / 포토에세이	2면
북한선교바자회 / 캄보디아 비전트립	3면
주방부소품 / 2010수험생명단 외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는 사실에 자유함을 얻어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중학교 때 친구와 우연히 들렀던 명동성당의 미사가 참 아름답다고 느꼈었습니다. 한 번의 경험이었으나 어린 마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신 분인가 보다 하는 막연한 경외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녀 시절 성당을 나가며 영세를 받았고 이듬해 결혼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초보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제게 신앙생활은 점차 버거워져만 갔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건강이 좋지 않아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고 익숙하지 않았던 믿음생활도 나약해졌습니다. 그즈음 남편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사업은 3년도 못가서 어려워졌고 경제위기와 함께 믿음이 없었던 남편은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직장생활을 시작해야만 했고, 한창 성장기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고 술에 대한 의존은 더해만 갔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가정을 지켜야만 한다는 책임감 하에 그나마 주일 미사로 위안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지천명의 나이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하늘의 뜻을 알지도 못했으며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신앙생활에서 오는 기쁨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힘겹게 살아왔는지,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저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CBS, CTS TV를 통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설교주제가 담긴 성경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신교회에 대한 편견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라는 사실!! 율법과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 마음속에 자유함을 느꼈 습니다. 그동안 의롭지 못했던 행위에 대한 죄의식에 갇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딸과 함께 잠실 주변의 여러 교회를 다니며 인터넷으로 저명하시다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때 방문했던 교회가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박원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저에게 커다란 은혜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의 거룩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으로써 남편과 우리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기로 결심하고 지난 9월 새가족 등록을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핵심적인 신앙교리 동영상과 양육리더 집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4주간의 새가족양육 시간을 통하여 낯선 교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육과정 중 특별히 저희 남편과 함께 하시어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매주일 예배 참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족들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가졌던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변화되고, 기도와 신앙생활에 충실하기를 결단합니다. 나약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7교구 방희선 성도>

■ 포토에세이

한나의 기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전능하신 여호와시여!

저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노란 은행잎이 휘날리는 계절에 은행잎을 닮은 예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애는 고구마처럼 감자처럼 자랐습니다.

그애는 바람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고 꽃을 사랑했습니다.

그애는 ‘사론의꽃 예수’를 좋아했고

주일학교 전도사님을 목소리를 흥내냈고,

춤추는 전도사님을 따라, 몸으로 찬양했습니다.

어느덧 18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건물색칠을 한번 더 할 즈음

우리 아이는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해주었는데

저는 기도에 게으름을 피웠고 말쑥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남을 섬김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어미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가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북한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로 아름답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북한선교팀이 소속된 국내선교소위원회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바자회를 해 보자는데 공감하고 준비를 시작하였다. 담임목사님의 뜻을 반영하여 성도들이 서로 물품을 가져와 팔고 사면서 성도들 및 이웃주민과 만남과 나눔을 즐기며 북한선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면 뜻이 깊을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출발하였다.

사실 이 행사는 북한선교를 위한 자금 마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북한선교를 위해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북한 선교를 위한 큰 발걸음의 시작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또한 이웃주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성도들 간의 만남과 사랑의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국내선교소위원회는 탐장회와 실무준비팀을 구성하여 수십 차례 만남을 거듭하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 취지대로 북한 선교를 위해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이웃과 소통하며 또한 북한선교를 위한 자금마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도들이 기증하는 가라지물품 외에 오미자를 담그고 한우를 잡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묘안이 제시되고 준비되고 있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며 바자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물품을 가져오고 또 준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감동적이다. 바자회를 위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미자를 담그고 자욱한 먼지 속에서 밤늦게까지 가라지 물품을 정리하고, 김치를 담그느라 며칠째 수고하는 권사회와 먹거

리를 준비하는 여러 여선교회, 물품을 접수받고 옮기고 봉사자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 등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느끼게 되었다.

성도들이 바자회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오고, 집에서 쓰던 소소한 물품에서부터 가전제품, 운동용품, 유아용품, 그리고 판매하던 구두, 가방 등 신상품, 값비싼 사진 작품과 그림과 상품권도 기증하고 있다. 영상으로 또 자신과 동료 연예인의 물품을 기증한 최수중 하희라 부부와 사인볼을 보내준 이영표, 서장훈선수, 거자씨 모임 단위로 천연비누를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이 참여함을 보고 놀랍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바자회에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10개 농어촌 혹은 도시개척교회와 정신여중고의 참여로 만남과 나눔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바자회가 될 것이다. 성도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이 느껴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국내탈북자의 지원과 북한선교를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의 지원과 고아와 쉼터(피난처)를 위한 지원, 북한주민에게 보내는 떡국, 그리고 일부 정신여중고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것이다.

<박중순 장로>



2010 북한선교 바자회

지난여름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추억하며



망고나무에서 떨어진 아이, 개에게 물려 살점이 떨어져 뼈가 드러난 아이 등. 치과,내과,소아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외과에서 치료며, 응급처리, 수술이 한창이다. 하루에 600명, 3일동안 1,8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장애우를 포함한 46명의 비전트립 봉사자들이 일주일간 프놈펜에서 2시간 떨어진 외진 곳에서 의료팀, 미용팀, 어린이팀으로 나누어 사역에 한창이다.

약국은 더 정신 없다. 아침부터 병원이 끝난 후 저녁 늦게까지, 빛의 속도로 약을 포장하며 나눠 주고 있다.

늦게 마친 탓에 장대비를 맞으며 가로등 하나 없는 칙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척에 있는 통근 버스를 못 찾아 헤매기도 하였다.

간단한 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생긴 만성질환이, 평생 안고 살아온 흑이며 굵은 부위가 하루 아침에 해결되었을 때, 기쁨 또한 얼마나 클까? 환자가 진정어린 고마움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받는 의료진이 느끼는 봉사의 보람은 또 어떤 느낌일까?

썩썩 썩썩~, 병원 앞마당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머리며, 네일 손질을 받고 있다. 헤어 스타일 건본이 없다 보니, 미용사 스타일로 해 달란다. 그 덕에 다들 머리모양이 비슷비슷하다. 의료팀 봉사하다 미용봉사도 해보고 싶다고 오신 분이 미용일이 훨씬 힘들다고 너스레를 떠신다.

어릴 적 고향길 같은 시골마을을 걸으며, 함께 간 유목사님과 선교사역을 한다. 헛간 같은 곳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부스스한 머리에 흙먼지로 풀 먹인듯한 옷을 걸치고 나온다. 잠시 후 눈망울이 초롱한 깡마른 아 이 두명이 나와 어미의 두 다리에 감긴다. 아버지는 없다

고 한다. 그 고단한 삶이 한 눈에 들어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절끔 난다.

와아 와아~, 작년에 세운 작은 교회 안에 촌촌이 앉은 600명의 아이들이 가스펠 송을 따라 부른다. 이곳이 이들에게는 영혼의 안식처가 아닐까?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선물을 나누어 줄 때 어린이팀, 장애우팀의 희열에 들뜬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동의 순간, 그 자체였다. 아이들의 노래가 10년 후, 20년 후 더 크게, 더 세련되게 울려 퍼질 모습이 영화처럼 떠오른다.

슬픈 역사를 지닌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전을 전하는 만큼, 함께 간 봉사자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새로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 비전트립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예배시간에 캄보디아 교인들과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였다. 에벤에셀(Ebenezer)의 하나님이 한국에 도움주셨듯이, 캄보디아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장봉기>